

통일법정책 연구제안서

/

■ 연구과제명

북한 마약 문제의 실태 조사 방안과 국제공조를 통한 해결책 모색

■ 연구내용 (※ 공간이 부족할 경우 표의 크기를 편집하여 사용 가능)

1. 연구주제

북한의 마약 문제에 대하여 그간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조사 동향과 추세를 검토하고, 탈북민의 마약류 노출과 중독 현황에 대한 기존의 조사와 이를 통해 북한의 현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조사 방안을 모색하며, 현재 국제 사회에서 마약 범죄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공조의 실태와 주요 조약 및 협조체제의 구축을 구체적인 방안과 각국의 유인을 기준으로 살펴 이를 근거로 북한의 마약 문제에 대한 조사방안과 공조 방안을 수립하며, 현재 남한의 마약 범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음의 사안을 규명하고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합니다.

가. 각종 사회변수 속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이후 북한 주민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인식과 오남용 실상을 추적하기 위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검토하고 발전 시킨다.

나.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종 사회변수 속성(지역별, 연령별, 계층별)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북한 주민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인식과 오남용 실상을 추적한다.

다. 선행 문헌을 통해 북한 내 마약 문제에 관한 북한 당국의 국제 협력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해당 변화의 원인을 북한 당국의 유인 관점에서 도출한다.

라. 북한 내 마약 문제가 대한민국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국내 차원의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한다.

마. 개별 국가의 국제 사법 공조 체제 참여에 관한 유인책 관점에서 요인을 밝히고 이를 실제 공조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응용안을 모색한다.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 제안의 배경

(1) 북한 마약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특징

①북한 당국은 대내외 정치적 목표 달성과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마약 생산 및 밀매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핵개발과 통치자금 확보 등을 위한 외화벌이 목적으로 마약 생산과 밀매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고순도의 헤로인과 메

스암페타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과 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마약 밀매는 초국가적 조직 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OC)로서의 성격이 나타나며, 대표적으로 TOC 네트워크와의 연계와 함께 북한 당국 자체가 체제 역량과 주권을 범죄에 활용하는 국가주도형 TOC의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② 한편 북한 당국은 민간의 마약 생산과 소비, 밀매를 통제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통제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민간의 마약 소비가 확산되면서 1999년 양강도 해산시 보위사령부 검열과 민간인 대상 공개처형을 시작으로 2021년 마약 범죄방지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북한 당국은 마약류 통제를 사회정화 및 부정부패 타파와 연관시키며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서 마약 소비는 크게 확산되어 오늘날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는 i)북한체제의 뿌리 깊은 부패로 북한 당국이 영리 목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마약을 유통하는 점 ii)당국의 마약 제조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보급된 점 iii)의료체계 붕괴의 여파로 아편은 물론 메스암페타민이 ‘얼음’ ‘빙두’ 등의 이름으로 민간 차원에서 마약류 대신 필수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한 점 iv)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 시스템이 부재한 점 v) 엄혹한 감시사회의 공포에서 메스암페타민 소비가 일상적인 기호식품으로서 오락, 유희, 향락, 기타 범죄 수단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에 기인합니다. 북한 주민 사이의 마약류의 구체적인 확산 정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대상의 조사를 통해 비추어 볼 때 이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미국 국무부가 「대외원조법」에 따라 작성하는 ‘국제 마약 통제전략 보고서(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INCSR)’는 2017년까지 북한 주민의 마약류 소비가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마약 문제는 당국의 부패와 역량, 의지 부족으로 총체적인 관리와 예방,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난관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③북한의 마약 문제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입니다. 북한 당국은 마약 생산 및 밀매와 깊숙이 연계되어 있으며, 국제적 고립을 자처해온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1995년 국제마약통제위원회 사찰단 수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한 현실적인 의료 체계 붕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보건의료 문제를 인정하고 국제협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제 유지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해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유행 초기부터 국경 봉쇄로 일관하였으며, 코로나 확진과 사망 사실을 사실상 인정함과 달리 2022년까지 세계보건기구에 대해 확진자가 전무하다 보고하고, 코백스 측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요건 등을 이유로 백신 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

④ 한편 북한의 마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은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마약류 통제 3개 국제 조약에 동시 가입(2007년 3월)하고 「TOC 협약」에 가입(2016년 3월)하며, 국제마약통제위원회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고(2002년 6월) 대표단이 참석한 “마약관리 및 통제에 관한 민족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보도하는 등(2009년 12월) 2000년대부터 국제사회의 마약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유엔 마약 범죄사무소 책임자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국장이 “북한이 주요 마약 공급원 역할을 하였다는 관행이 2002년 중단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INCSR 2013, INCSR 2017은 각각 북한 당국의 마약 생산과

밀매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고 최근 마약 밀매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대북제재 속에서 은폐 방법이 더욱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과 경제난 속에서 북한 당국에게 여전히 마약 생산 및 밀매를 유지 확대할 유인이 상존한다는 점,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 당국의 개입 방식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마약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 적응 문제와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

①2023년 1분기까지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한 탈북민은 총 누적 3만3981명으로, 탈북민은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먼저 온 통일’로서 통일 이후 성공적인 사회 통합과 발전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탈북민들이 70여년의 분단 속에서 벌어진 사회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마약 문제는 특히 탈북민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마약류가 대체 의약품으로 통용되는 북한에서의 경험으로 인하여 탈북민은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사회 정착 과정에서 돈벌이를 위하여 마약류 사용, 밀매, 운반 등 범죄에 노출되고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탈북민 중 교도소 수감자를 범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마약 사범은 2019년 전체 수감자 152명 등 55명을 차지하는 등 5년 내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마약류 범죄로 구속된 일반 국민의 비율은 22.3%에서 15.2%대로 감소하였지만, 탈북민의 마약류 재소자는 24.8%에서 36.2%로 증가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기준 마약류 사범은 약 1만 명(0.02%)이지만, 탈북민 3만 3천 명 중 마약사범은 50여 명(0.15%)으로 전체비율로 보았을 때 약 7.5배 높았습니다.

마약 범죄의 조직범죄로서의 성향과 탈북민 사이의 강한 동료의식으로 인하여 다수의 공범자가 연루되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 교도소 수감 재소자 48명(사건 51건) 중 17명(18건)의 마약사범 모두가 공범이 있었고, 한 명을 제외 한 공범 전원이 탈북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우리 사회에 탈북민이 성공적인 정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②최근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과거의 인식이 무색하게, 신종 마약의 유입과 텔레그램 등 다크넷(dark-net)을 통한 암수화의 영향으로 마약 투약, 유통, 제조 및 이와 연루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강남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에게 정체를 숨기고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금품갈취를 시도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등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며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범죄로, 재범률 및 암수범죄 비율이 높고 조직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큼니다. 따라서 북한 및 탈북민을 고려하는 마약 정책의 수립은 전반적인 마약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중국인 공급책과 국제 보이스포싱 조직이 관여한 바에서 나타나듯, 마약 범죄는 그 수사와 대응에 있어 마약류 단속과 밀수 차단, 해외 도피 사범 강제송환 등 관련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과 국제적 차원의 공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북한 마약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전반적인 국내의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연구내용

(1) 국제조사를 통한 북한 마약 문제 현황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 모색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마약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대책 마련의 기초가 되어야 할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가장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먼저 국제기구를 통한 조사, 시찰을 검토할 것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북한 마약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와 해외 기관, 국제 기구에서 작성된 간행물과 보고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북한 마약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국제조사에 대한 해외 실례를 검토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에티오피아 등 폐쇄적 국가에서 환각성 식물 까트(Qat) 및 아편 중독에 대한 조사와,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에서 미국이 개입한 국제 조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개별국들이 국제 조사를 허용하거나 이에 협조할 유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가 어떻게 그러한 유인을 창출하였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끝으로 앞선 연구를 북한의 사례에 적용하여, 북한이 국제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하여 i)국제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마약류 사용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구체적 인식 변화, 다양한 지역별 표본 확보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명확한 과제를 설정하고 ii)최근 마약 관련 국제기구와 조약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북한의 양태와 구체적 동기를 분석하며 iii)정치 안보 문제와 분리된 독자적 영역으로서 의료보건 지원을 논의하는 등 협상 단계의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전수조사 설계 및 법적 근거 마련

이와 별도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조사 방안 및 법적근거를 검토합니다. 상술한 국제 공조가 북한 당국의 협조를 요하는 장기적인 달성 과제라면, 효과적인 교육과 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장 착수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우리 사회 전반에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기 목표에 해당합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마약 노출 혹은 마약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부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마약 검사와 북한의 마약 유통, 투약, 제조 및 기타 사회문화적 환경 현황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문항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설문조사는 개별 응답자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는 물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조사가 제한된 현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대북정책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참고자료이자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 문항 설계에 있어서 특별히 염두에 둘 것은 북한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과 마약류 경험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마약류 경험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입니다. 마약류 중독 과정에 있어 개인적 특성, 사회구조, 준거집단, 대인관계 등 각 요소에 주목하는 다양한 중독이론이 있으며 이는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개입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문항은 i)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 ii) 직간접적 마약류 경험, 노출, 유통에 대한 면밀한 조사 iii) 북한 사회의 마약에 대한 인식은 물론, iv) 당국의 마약 통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통제정책 과정에서 구사하는 언어에 대한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분석을 통한 간접적 정책 효과 및 방향성 측정 v) 최근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정책에 따른 여파 vi)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의 구조가 마약류 경험 및 노출에 영향을 끼치는 양상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마약 문제에 대한 현황 및 변화추세를 정밀히 파악하고, 동시에 북한 주민의 마약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 풀(data pool)을 축적하여 성공적인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탈북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시계열 조사를 통한 종단자료 확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약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북한과 남한의 환경적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특히 북한 주민들이 마약 문제에서 벗어나는 해결수단을 고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전면조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원과 하나원 수료 후 탈북민의 지역 적응을 지속적으로 돕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 규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에 마약류 실태 조사와 중독 예방을 그 역할과 업무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나아가 모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약 문제의 중요성과 하나원 수료 이후 지속적인 조사, 치료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전반적인 마약 문제 대응이 치료적 사법 및 예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있어 효과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 문제 대응책 마련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은 보건 분야에서 지원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이 주도하고 개입하고 있는 국가 주도형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범죄 수익 환수라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북한의 마약 문제는 근본적으로 오늘날 국제 규범이 금기시하는 범죄에 북한 당국이 결탁하고 있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는 오늘날 북한 주민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와 동아시아 전역의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은 북한 당국의 마약 생산과 밀매를 실효성 있는 확인과 차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는 북한의 마약 범죄 관여로 인하여 얻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북한 당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반발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북한의 반발을 극복하고 북한이 마약 범죄에 관여하여 얻는 비용을 장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북한의 마약 문제를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 단독의 제재조치가 아니라, 초국가범죄로서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고 마약 단일 의제에 대응하는 국제공조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각국들은 국제 범죄조직의 관여를 통하여 나날이 고도화되는 초국가적 마약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히 주도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 (APICC) 창설·운영, 한·중 마약대책회의 개최, 베트남·방글라데시 마약통제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경험을 활용하여, 북한 주도 마약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사범공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개별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럽 연합의 특정 범죄에 대한 사범·수사 공조 체계인 유로저스트(Eurojust)를 모델로 개별국의 마약통제정책을 통일한 의제 아래 지원하는 것을 상설화하고 합동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의 공동추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국가의 행태와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협력에 동참할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북중국경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이 생산하는 마약이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고 있고 실제 북한의 마약 통제 정책에 대하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북한 문제를 자국의 안보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압박과 개입을 거부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주도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되, 마약 문제 대응이 대북제재와 무관한 아시아-태평양 차원의 공동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별국의 행태를 통하여 사범공조에 참여시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마약 범죄에 참여할 유인을 감소시켜 북한 마약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연구방법

문헌자료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i)북한 당국의 마약 문제 연루와 주민 대상 마약통제정책 ii)북한 주민의 마약 노출 실태 iii)마약 문제와 이를 둘러싼 조직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실태로 각 주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기, ②유엔 마약 범죄사무소와 미국 국무부 등 해외 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작성하는 마약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초국가적 대응 방안 사례들과 북한의 마약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확인하기, ③통일부 등 국내 관계기관의 간행물과 하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 조사 문항 검토하여 효과적인 조사방법 설계 및 그 법적 근거 마련하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 기존 연구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연구와의 중복(예 아니오)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중복되는 경우에만 기재)

(1)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간적 적실성 있는 북한 마약 문제 연구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북한이 세계보건기구의 정보 제공에 대한 국제 공조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 사태와 대응 역량은 알 수 없지만(양상희, 2022), 2021년 세계보건안보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의료분야 위기관리능력은 195개국 중 193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임을출, 2023), 북한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의료붕괴에 근접한 수준으로 의료 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치료제 및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사회 내부에서는 마약을 의약품의 일종으로 오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양옥경 외, 2018), 예상되는 북한 내 의료붕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북한 주민의 마약 오남용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행된 북한 주민의 마약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용희(2021)의 연구가 유일하나, 이 역시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점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북한 내부의 마약 문제는 급격히 심각해졌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그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큼니다.

(2) 사법공조에 대한 개별 국가 참여 유인을 검토하는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 방안 마련

북한의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은 근본적으로 ①국제적 차원의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마약 범죄 연루에 따르는 비용을 증대시켜야하고 ②폐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방면의 압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적 관점과 함께 국제정치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별국의 협력을 도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때 마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특정 국가가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유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면, 정재준(2013)의 유엔의 국제범죄 방지의 신동향에 대한 연구는 마약 범죄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은 부족했습니다. 백기봉(2013) 역시 동아태 지역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공조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했으나, 마찬가지로 마약 범죄에 특성에 맞춘 구체적 접근은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상철(2020)은 마약밀매범죄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며, 국제개발협력기구와 국제협력다자기구 및 UN 특별기구를 통한 다양한 공조체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의 관점에서는 연구하지 않았다. 한편 이관형(2021)은 북한 마약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괄하며 북한 당국의 마약 생산 및 밀매 문제에 관해 대한민국, 중국, 미국 등 개별 국가들에 제언은 하였으나, 북한 당국에 대한 구체적 공조 참여에 위 국가들이 동참하여야 할 구체적 유인이나 제재, 동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의 마약 생산 및 밀매와 북한 주민의 마약 오남용 문제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을 때, 개별국에게 어떤 유인 구조를 형성하여 국제공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5.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 내 마약 범죄 현황의 분석 기법 개발 기여

본 연구는 탈북민을 통해 북한 당국의 마약 범죄 및 대응 현황과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는 방식의 조사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탈북민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북한 내부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타당한 방법론의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마약 범죄 연루위험 해소 방안의 기초 제공

탈북민은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으므로, 탈북민의 마약 범죄 연루 원인과 범죄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나아가 탈북민의 마약 범죄는 대한민국의 급증하는 마약 범죄 위협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총체적 마약대응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 국내 마약 범죄의 장기적 대응책 개발에 기여

북한 당국의 마약 범죄 및 대응에 관한 문제와 북한 주민의 마약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 대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 당국의 마약 범죄로 인해 대한민국 내부의 마약이 공급되고, 북한 당국의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은 곧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 위험 노출과도 중요한 관련을 맺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실태는 곧 탈북민의 마약 사용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대한민국 내부의 마약 범죄와도 관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한 마약 범죄 연구는 북한 내부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과도 큰 관련을 갖기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 내부 마약 범죄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험 요소 분석 및 대응책 모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국제적 차원의 마약 범죄 대응 공조 체계 고도화에 기여

마약 범죄는 국제적 유통책을 통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된 대형 카르텔 범죄의 형태를 띤 초국가범죄(Transnational Crime)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대응뿐만 아니라 다수 국가 간 긴밀한 국제적 차원의 공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 마약 범죄에 대한 공조 체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마약 범죄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마약 범죄에 대한 공조 방안 중 국제 형사법 관점에서의 공조와 경제 제재적 관점에서의 공조 모두에 이용될 수 있는 개별 참여자인 국가의 참여 유인 분석을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이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1. 연구논문

양양규, 김윤영, 한상암. (2021). 탈북민 마약류 범죄 대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2), 127-157.

양옥경, 윤여상, 이관형, 김성남. (2018). 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실태와 대책. 동아연구, 37(1), 233-270.

신상철. (2020).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마약밀매범죄 해결방안 연구 - UN SDGs 16항을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7(1), 77-98.

백남설. (2021). 북한의 국가적 불법행위에 대한 고찰: 북한의 마약밀매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14(1), 92-111.

안상원. (2022).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2), 19-34.

양상희. (2022). 북한의 코로나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보건규칙(2005)의 국제공조 관점에서. 국제문화연구, 15(2), 185-204.

백기봉. (2013). 동아태 지역에서의 초국가적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국제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과제 —. 서울국제법연구, 20(1), 71-96.

정재준. (2013). 유엔(UN)의 국제범죄 방지 신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강원법학, 39, 375-416.

함중영. (2017). 북한의 국제조직범죄 활동과 대응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외국어대학교.

임을출. (2023). 북한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정치정보연구, 26(1), 95-125.

조성권. (2010). 마약밀매와 환경안보: 콜롬비아의 사례연구. 라틴아메리카연구, 23(4), 119-145.

이용희. (2022). 북한 경제난 속에서 심화되는 주민들의 마약 중독 실태와 대책. 통일전략, 22(2), 63-101.

2. 학위논문

김재환. (2020).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동대학교.

이관형. (2021). “북한 마약 문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3. 기타 자료

대검찰청. (2023).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23). 2023년 5월 4일(목) 보도자료(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결과).